



Hana Market Weekly

---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2. 17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달러/원 동향(2/10~2/14)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기대인플레이션 반등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발표 등 물가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 속 환율 상승 출발. 이어 미 관세 불확실성에도 고점 인식 속 매도물량 유입되며 상단 제한
- 중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미 CPI 발표 전 관망심리에 횡보세를 보임
- 후반, 미 1월 CPI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졌으나 러-우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하락 전환. 이어 주 후반, 미 정부의 상호관세 조정 가능성에 달러 약세가 나타난 가운데 하락세 보이며 1,440원대 초반 마감

## 달러/원 전망

- 미국 1월 소매판매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 압력이 주 초반 시현되며 원화 강세 흐름 출발이 예상
- 여기에 트럼프 관세 부과 영향이 협상과정에서 시기적인 유예 등으로 연기된 측면 등도 달러 약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가능성에 따른 유로 강세 흐름 등도 직접적 원화 강세 흐름 견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57.5	1,458.0	1,440.5	1,443.5	-14.0

## 예상거래범위

1,435원 ~ 1,460원

# 유로·엔화 동향 (2/10~2/14)



## 유로화 동향

- 초반, 미 관세 정책이 유로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가 확산된 영향으로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ECB 관계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반등
- 중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 소식에 유로화는 큰 폭 강세를 보임
- 후반, 러-우 종전 기대감과 유럽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되자 강세 지속. 이어 주 후반, 예상치 웃돈 유로존 4분기 GDP에 추가 강세를 보이며 1.05달러선에 근접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328	1.0514	1.0280	1.0492	+0.0164



## 엔화 동향

- 주초, 미 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관세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추가 약세를 보임
- 중반, 미 CPI 반등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한 가운데 미-일 금리차 확대된 영향으로 약세 지속
- 후반,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지자 안도감이 유입된 가운데 강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미 소비 부진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과 미 국채금리 하락에 추가 강세 보이며 152엔대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1.3	154.8	151.2	152.3	+1.0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2/10~2/14)



##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25% 관세 부과 및 추가 상호 관세 이슈 등이 뚜렷해지며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우려감 확대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뚜렷한 방향성 부재 속에 혼조세 출발. 이어 전일 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물가 경계감 확대 등이 반영되며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관세 이슈 지속에 따른 국내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연이틀 국고채 금리 혼조 흐름 시현
- 중반 들어, 연준 파월 의장의 정책 기조 조정 서두르지 않겠다는 매파적 발언을 소화하는 가운데 1월 CPI에 대한 경계감 확대 등으로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미 1월 CPI가 전년동월대비 3.0%로 상승 전환하며 국고채 시장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2월 도비시 기대를 높인 금통위에 대한 기대 등이 저가 매수에 힘을 싣는 형국 속에 하락 전환 후, 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지연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 추세에 연동하는 양상 속 마감

##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부각에 투자심리 약화되며 하락 출발했으나 보편 관세 대비 상호 관세에 대한 영향이 한국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 등으로 보합권 흐름 양상 시현. 이어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한 정보의 코스피에 대한 영향력 약화 속 정부 차원 산업별 대응에 따른 지원 기대감 반영되며 상승 전환하는 국면
- 중반 들어, 미국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우세 속에 방산 및 조선 업종 모멘텀 확대 등으로 상승 추세 이어진 양상
- 후반 들어, 미국 CPI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지만 코스피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 급물살에 영향을 보다 크게 반영하는 가운데 업종별 강세 흐름 시현 후, 주 후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즉각적 적용 대신 4.1일까지 상호 관세 지연 조치 시행 소식 등이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 미치며 소폭 상승 지속하여 마감